

# Today's Chart

## 비트코인, 10만달러선 복귀 의미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그림1. 셀 USA 현상 완화 속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선으로 복귀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비트코인과 매그니피센트7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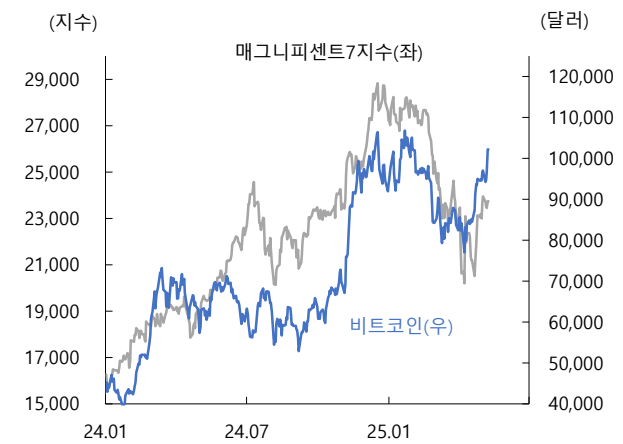


그림3. 상호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 흐름 지속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 ■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선 회복

- 상호관세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지난 4월 한때 7만 4천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10만 달러를 회복함.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상회한 것은 지난 2월 2일 이후 처음임
- 비트코인 가격의 급반등 현상에는 아무래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리스크 완화가 한 몫을 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시행을 유예한지 한달만에 영국과 첫번째로 무역협상을 타결함. 물론 미국과 영국간 깊은 유대관계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와는 달리 영국과는 심각한 무역 갈등 혹은 이견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관세 협상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와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점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의미함. 금융시장이 최악의 고율 관세 충격에서는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화시킬 여지는 충분함.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진 것임
- 비트코인 가격의 또 다른 상승 배경으로는 유동성 효과를 빼 놓을 수 없음. 비트코인 가격이 유동성 및 금리 흐름에 민감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유동성 효과가 크게 작용함. 미국의 고율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ECB, 중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서고 있는 동시에 재정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면서 유동성 여건은 오히려 양호해진 상황임. 이를 반영하는 것이 <그림3>의 글로벌 유동성 Proxy 지표의 상승 추세임. 글로벌 유동성 지표의 경우 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영향을 받은 것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임. 양호한 유동성 흐름의 자금들이 비트코인 ETF 등으로 유입된 것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강세로 이어진 것임
- 상호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급등 조짐을 보이던 신용스프레드의 하향 안정세 역시 비트코인 가격 추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이 밖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백악관의 국부펀드 설립 발표 등도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함

## ■ 비트코인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그니피센트7 등 기술주의 강세 현상도 이어질 듯

- 당사가 자주 언급한 바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기술주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지 중임. 상호관세 불확실성 완화 속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술주 반등 흐름도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판단임
- 더욱이 관세 리스크로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분위기가 상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줄지어 타결될 경우 물가 및 고용 리스크가 동반 완화될 수 있고 이는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즉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재차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화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비트코인은 물론 기술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공산이 있음
- 1분기 미국 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였지만 수입급증에 따른 성장률 왜곡 현상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침체 우려 역시 완화되는 분위기임. 더욱이 관세 리스크가 추가로 완화된다면 미국 경기가 심각한 침체보다 일시적 둔화 혹은 침체국면을 지나 회복할 여지가 있음도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기술주 추가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영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의 관세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와 더불어 미국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미-중간 협상은 여전히 금융시장이 경계해야 할 잠재 리스크임

###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